

목포 가톨릭성지 조성 6년만에 본격화

152억원 투입 나눔봉사관 20일 착공·올 연말 완공 목포시, 170억원 들여 주변 3곳 기반시설 확충도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사업이 목포시와 가톨릭 광주대교구 간 협약 체결 이후 6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은 산정동 90-1번지 일대 부지면적 3만267㎡에 총 사업비 577억원을 들여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 성직자 동,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하 나눔 봉사기념관) 등을 건립, 호남지역 첫 선교회 의미를 복원하고 성지 순례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7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재)광주구전 주교회의지 재단은 지난 11일 가톨릭 목포성지 나눔 봉사관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금액 152억1818만원에 납화토건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나눔 봉사기념관은 연면적 815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일께 착공해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기념관 건립에는 국비 25억5000만원, 도비 10억2000만원, 시비 15억3000만원 등 5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 2014년 말 국·도비는 교부됐으나

시비 5억8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목포시는 올해 2차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을 위해 총 170억원을 들여 성지 주변 3곳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35억이 투입된 산정동~등대식육점간 도로 공사는 완료됐으며, 앞으로 등대식육점~대북정 구간과 북음교회~목여고 구간을 확포장할 예정이다.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원은 "산정동 성당은 1935년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 가톨릭 평신도 봉사단체) 발상지로 550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전국 각 성당마다 레지오 액션 단체를 보유하고 있고 가입인 신도만 55만명에 달해, 관광자원의 가치는 물론 관광중심도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산정동 성당을 다녀간 방문객은 일반 신도 성지순례 2000명, 레지오 마리에 성지순례 3000명, 피정 500명, 선교행사 700명 등 6700명을 비롯한 일반인 관광객 1500명 등 총 8200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방문객은 1만4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당 측은 2017년 레지오 마리에 봉사 기념관이 완공되면, 방문객 수가 2017년 7만1500명, 2018년 11만8000명, 2019년 19만4500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목포가 성지순례의 메카로 급부상해 잠재된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포성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중앙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며, 오른쪽 아래 붉은 색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중앙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며, 오른쪽 아래 붉은 색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중앙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며, 오른쪽 아래 붉은 색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중앙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며, 오른쪽 아래 붉은 색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중앙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며, 오른쪽 아래 붉은 색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중앙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며, 오른쪽 아래 붉은 색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1912년 축조 유달산 옛 수원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등록 추진

심의회 적합성 평가 현지조사

목포시가 목포 3대 관광명소인 유달산 내 옛 수원지(제2 수원지)를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할 계획이어서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달산 제2수원지가 ‘남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사전 지정 예정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산림문화자산심의 위원과 전남도 관계자 등 5명은 적합성 평가(역사·문화적 가치 등)를 위한 현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산림문화자산은 산림 내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깊으나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관리하고,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이 지정한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흥릉 숲을 비롯한 18개소이며, 전남에서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치나무 숲 등이 포함됐다.

유달산 옛 수원지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9월~1912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축조된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로 유역면적은 0.1㎢, 저수량은 3697㎡에 달하고 석조댐의 높이는 6.3m, 길이는 40m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거주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던 급수시설로 활용됐으며, 국내 산림 내 소재한 수원지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만 해도 수도관을 매설해 식수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돌 등으로 정비된 도랑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했으며, 일본인들은 이곳 주변에 뽕나무를 심어 유원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이 자리에 신사를 신축하기 위해 저수지와 여과지, 배수지 등 중요시설을 전부 파괴해 매몰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곳은 이 같은 역사성과 함께 민선 6기 목포시에서 주력사업으로 진행한



국내 산림 내 조성된 수원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달산 옛 제2수원지의 모습. 유달산 둘레길 8개 코스 중 가장 인기 높다.

유달산 둘레길에 포함돼 있어 향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테마가 있는 도심 속 힐링 코스이자 관광명소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원지 석조 댐 위에 조성된 둘레길은 짧은 길이지만 데크와 난간이 설치돼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 삼학도와 함께 600여 년 전의 목포를 한층시켜 놓은 목포진이 마주하고 있고, 바로 앞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거리

등을 직접 볼 수도 있어 걷기 코스로 인기가 높다.

김진호 목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훼손을 막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항 주변 ‘씨 사이드 시티’ 만든다

(SEA SIDE CITY)

민자 1200억~1500억원 투입 호텔·문화센터·음식타운 등 2018년까지 관광 명소 조성

목포수협은 북항 이전을 앞두고 목포항 주변에 ‘목포 씨 사이드 시티(SEA SIDE CITY)’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목포수협에서 목포항 여객터미널에 이르는 해안로 550m 구간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계기로 관광활성화에 대비한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목포 ‘SEA SIDE CITY’ 조성사업은 면적 2만4000㎡에 호텔·문화센터·음식타운·복합쇼핑몰·상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1200억~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말까지로 전액 민자 유치로 추진된다.

윤인영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국토부 도시정책과의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컨설팅을 받아 지난 14일 사업계획 및 전남도 지원 사항을 협의했다”면서 “오는 8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을 거쳐 올 연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용해 1·2지구 단위계획 변경 추진...청호중 이전 탄력

목포시가 용해 1, 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서기로 해 청호중학교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용해1지구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옆에 있는 중학교 용지 9843.6㎡를 연립주택 용지(7843.6㎡)와 문화시설 용지(2000㎡)로 각각 분할 변경하고, 용해2지구 백련지구 옆에 있는 고등학교 용지 1만4156.6㎡를 중학교 분산 배치 등을 이유로 청호중학교 이전을 주장해 왔다.

목포시는 지난 3월말부터 14일까지 15일간에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설과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상원 목포시 도시계획과장은 “조만간 목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할 뒤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할 계획”이라며 “LH소유의 문화시설용지 2000㎡는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목포시교육지원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목포시 용해1, 2지구와 백련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망학생 수용 ▲기존 용해1지구 거주 학생 통학불편 해소 ▲목포시 학교군내 중학교 원도심 집중 및 원거리 배정 등에 따른 갈등 완화 ▲인근 유달중학교와 1km 이내로 중학교 분산 배치 등을 이유로 청호중학교 이전을 주장해 왔다.

청호중학교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226억93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현재 청호중과 새로 이설되는 학교부지의 거리는 3.5km다.

한편 현재 청호중학교는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26학급 규모이며, 이설 초기에는 14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지번·소유권 불일치 건축물 내달 10일까지 일제정비

목포시가 지번이나 소유권 등이 일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목포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지번·구조·소유권 불일치, 부존재 건축물 대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목포시 관내 건축물 현황은 총 3만1348건으로, 단독주택 2만451건, 공동주택 1179건, 근린생활 시설 6215건, 문화 및 집회시설 63건, 종교시설 189건, 공장 386건 등이다.

목포시 건축행정과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지번 등 불일치, 부존재 건축물 확인 후 직권 대상 말소 ▲임대용 집

합건축물 등 호수 현황 일치여부 확인 후 재정비 ▲철거신고 후 철거여부 미확인 건축물 67개소 대장 정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일제 정비와 함께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48건, 공사현장 사무실 12건, 임시건축물 186건 등 총 246개소다.

건축행정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준지 기간이 경과했거나, 용도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불법건축물 축소 여부 등을 확인해 건축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새들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새 주인을 찾습니다

팬션 매매

아름다운 팬션 3채에 영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